



최종원(서울신대)

## 1. 서론

본 연구는 현대 정치와 경제의 불균형에서 나오는 사회의 불안정(오늘날 covid-19로 인한 전염병 증상)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현상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이스라엘 사회를 구성하고 영향력을 일으키는 신명기의 법체계를 통하여 당시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한 시대 정신은 무엇이며 어떤 모습으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2826).

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원하였는지를 신명기의 중요한 법 체계 중 하나인 '비아르타 법'(bi'arta-law)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신명기 연구의 경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신명기는 더 이상 한 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포로기 또는 포로기 이후 어느 한 공동체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조직적이며 의도적으로 구성되었음이 드러나고 있다.<sup>1</sup> 이러한 의도성은 전체적으로 계약 백성으로서 나라를 잃은 암울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한 주제로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 아래, 신명기 법 가운데 소개되는 '비아르타(bi'arta, בִּיאָרְטָא) 법'은 공동체의 질서 유지와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신명기 공동체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비아르타 법'의 끝맺는 어구('너 가운데 그악을 제거하여 버리라')를 통하여 그들의 사회를 매우 체계적으로 조직하였다. 이 표현은 소위 '신명기 법'(12-26장) 안에서 구조적으로 매우 잘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조직적 구성은 최근 신명기 연구의 흐름 가운데 있는 '복서셈어의 계약적 전통'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신명기 법(12-26장)안에 있는 '비아르타 법'의 전통사적 의미와 문학적 성장사를 밝히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아르타 법'의 전통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전통은 복서셈어적 계약 전통과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 2. 연구사 및 방법론

### 1) 연구사

최근 신명기 연구의 흐름에 따라 페르시아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제국주

<sup>1</sup> U. Rüterwörden, "Alte und neue Wege in der Deuteronomiumforschungen", *Theologische Literaturzeitung* 132 (2007), 877-889.

의 법과 신명기의 계약 전통 사이의 비교 연구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sup>2</sup>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신명기 저자의 독특한 문학적 기술을 연구하고, 그에 따른 신명기의 신학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당시 사회, 정치,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비아르타 법'은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헌법적 역할로서 신명기 법 안에서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별히 선택된 '비아르타 법'의 본문들은 신명기 계약신학 전통 안에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계약은 왕정시대의 계약을 시작으로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국가 재건을 위한 자체적인 계약으로서 기능하며,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스스로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괴니히(E. König)는 '비아르타 공식'(bi'arta-forme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본문 분석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그는 동사 '제거하다'(מָצַח)의 활용이 적어도 오경 안에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sup>3</sup>

직접적으로 신명기와 관련하여 연구한 학자는 로우르(J. l'Hour)이다. 그는 '비아르타 공식'을 사법적 개념으로 적용하여 신명기 법전보다 이전에 기록되어 형성된 법으로 본다.<sup>4</sup> 당시 구약학적으로 신명기 계약법과 언약법전과의 비교연구가 고대 근동의 계약 문서와의 관계성 속에서 수많은 자료들이 나타나고 있던 시점이라 신명기의 '비아르타 공식'이 신명기 법의 틀 안에서 여전히 시대적으로 왕정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관점을 유지한 것으로 보였다.

이후 구약학계는 편집비평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 속에서 자이츠(G. Seitz)는 신명기의 '비아르타 공식'을 결의론적(kasuistisch)인 법양식으로 언급하였다. 그는 편집비평의 방법으로 각각의 법

결말 부분에 사형 판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을 특징적인 양식으로 언급했다.<sup>5</sup> 물론 그는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사형이 언급되고 있지 않음도 동일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 양식이 신명기 법전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동시에 이 법 공식이 교훈적인 의미의 본문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사법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음이 특이할 만하다고 보았다.<sup>6</sup> 그는 양식사적 비평 방법으로 접근할 때, 오히려 이 문장을 첨가된 부분으로 보았지만,<sup>7</sup> 전승사적 차원에서 그 전승의 기원을 12 족장 시대의 전쟁사로 언급했다. 이러한 판단은 노트(M. Noth)가 이스라엘 부족의 근거를 암픽티오니의 부족 동맹체제로 보고 있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의 단점이었다.<sup>8</sup>

자이츠의 법 공식을 다른 관점에서 연구한 메렌디노(R. P. Merendino)는 이 법 양식을 시민권(bürgerliches Recht)의 입장에서 새롭게 연구했다.<sup>9</sup> 물론 그는 이 시민권의 내용이 신명기 법전에 속하여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신명기 17장 7b절이 노트의 의견에 따라 암픽티오니의 전승 아래 있다고 보았던 것은 자이츠의 의견을 따르고 있다.<sup>10</sup>

포로기 이후 정치적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로 변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뢰터스베어텐(U. Rüterswörden)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 공직자의 역할을 소개하는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8장 22절의 연구를 통하여, 신명기 17장의 사고가 신명기 13장에서 유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학적 성장 단계로 본문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신명기 17장 7절의 '비아르타 공식' 역시 신명기 13장 6절에 근거하고 있

2 최근 신명기역사학의 연구 동향은 다음을 참고하라. 이은우, "소위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구약논단』 제 14권 3호(2008년 9월), 67-86.  
3 E. König, *Das Deuteronomium* (KAT; Leipzig: A Deichertsche Verlagsbuchhandlung Werner Scholl, 1917), 123.  
4 J. l'Hour, "Une législation criminelle dans le Deutéronome", *Biblica* 44 (1963), 1-28.

5 G. Seitz, *Redaktionsgeschichtliche Studien zum Deuteronomium* (Stuttgart, u.a.: Verlag W. Kohlhammer, 1971), 131.  
6 윗글, 131.  
7 윗글, 132.  
8 윗글, 132의 각주 131.  
9 R. P. Merendino, *Das Deuteronomische Gesetz: Eine literarkritische, gattungs- und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Untersuchung zu Dt 12-26* (BBB; Bonn: Peter Hanstein Verlag Bonn, 1969), 66.  
10 R. P. Merendino, 윗글, 66-67.

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흔적들은 이후 모든 '비아르타 공식'이 나타나는 본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그는 제안한다.<sup>11</sup> 이런 점에서 그는 학교 체제와 관련한 신명기 신학의 특징들이 이러한 '비아르타 공식'의 본문들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심에 형용사의 명사형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하리아'(חַרְיָא)의 사용법에 주목한다. 그 약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사악한 행위의 법과 관련이 있음을 그는 지적하고 있다.<sup>12</sup> 이에 그는 신명기 17장 2-7절을 신명기의 사법적 개념과 예언자적 전통의 계약 개념을 상호 연결시켜 주는 본문으로 제안하는데, 이는 계약 또는 조약의 파괴라는 전통사적 흐름 위에서 해석하면서 신명기 연구의 새로운 전환을 암시했다고 볼 수 있다.<sup>13</sup>

또 다른 관점으로 닐슨(E. Nielsen)은 '비아르타 공식'을 제의적 축제(Sakral-Akt)와 연결시키고 있다. 그는 이러한 축제를 지방 공동체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았다.<sup>14</sup> 닐슨도 편집사적 비평 방법을 통해서 연구하지만, 이 공식들을 신명기의 법적 수집물 이전의 시기로 보았다. 다만 그 본문은 신명기 13장의 처음 두 본문에 해당되며, 여기서 '비아르타 공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17장 2-7절은 편집적으로 추가된 본문으로 보았다. 이 본문에서 그는 '비아르타 공식'을 신명기 수집물 이전의 시기로 추정하는 것은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했다.<sup>15</sup> 이러한 그의 해석은 한 본문의 역사적 관점을 정확히 볼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 의하면, 아직까지 '비아르타 공식'은 통일된 주제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연구 방법론 자체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바이올라(T. Veijola)는 구약 괴팅엔 학파에서 나오는 주석 시리

11 U. Rütterswörden, *Von der politischen Gemeinschaft zur Gemeinde. Studien zu Dt 16,18-18,22* (BBB Band 65; Frankfurt am Main: Athenäum, 1987), 37.  
 12 U. Rütterswörden, "Das Böse in der deuteronomischen Schultheologie", T. Veijola, *Das Deuteronomium und seine Querbeziehung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6), 238-239.  
 13 U. Rütterswörden, *윗글*, 240-241.  
 14 E. Nielsen, *Das Deuteronomium* (Tbingen: Mohr, 1995), 147.  
 15 E. Nielsen, *윗글*, 181.

즈인 ATD(Das Alte Testament Deutsch)의 신명기 주석에서 '비아르타 공식'을 십계명의 제1계명의 위반 시에 사형을 승인하는 법적 본문으로 판단하고 있다.<sup>16</sup> 그의 연구는 분명 획기적이었다. 그러나 '비아르타 공식'의 본문들은 제1계명 이외의 법적 조항과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는 매우 제한적인 접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최근에 로페(A. Rofé)는 신명기의 사법부의 구조라는 주제로 재판관 또는 사사로 불리는 계급의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했다. 그는 이 연구에서 비록 '비아르타 공식'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법적 역할을 소개하는 본문들의 단계를 4부분의 시기로 나누고, 그 마지막 단계로 포로기 이후 민족 종교 공동체의 법적 시스템이 외국의 주권에 의해서 분산된 것으로 보았다.<sup>17</sup> 그러나 그의 연구는 이 마지막 종결문으로 끝나는 '비아르타 공식'에 대한 접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신명기의 사법체계의 근본적인 성격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신명기 연구는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가장 크게는 원신명기에 관한 문제제기다. 오토(E. Otto)는 쉬타이만스의 '에살하돈의 왕위 계승사(VTE)'의 비문과 신명기 28장의 비교연구를 수용하여 신명기 13장과의 연관성을 이어 나갔다.<sup>18</sup> 그는 신명기의 태동과 관련하여 메소포타미아의 앓수르 문

16 T. Veijola, *Das 5. Buch Mose: Deuteronomium Kap. 1:1-16:1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원진희 역 (서울: 동연 출판사, 2010), 324.  
 17 A. Rofé, "The Organization of the Judiciary in Deuteronomy", P. M. Michèle Daviau, J. W. Wevers, M. Weigl, *The World of the Aramaeans I* (JSOTSup.32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92-112.  
 18 E. Otto, *Das Deuteronomium. Politische Theologie und Rechtsreform in Juda und Assyrien*, BZAW 284 (Berlin/New York, 1999). 최근에 조약 개념과 관련하여 아카디아의 문학 유형과 신명기의 구성과의 비교연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W. S. Morrow, "Cuneiform literacy and deuteronomistic composition", *Bibliotheca orientalis* 62 (2005), 204-213; J. Pakkala, "Der literar- und religionsgeschichtliche Ort von Deuteronomium 13", M. Witte, u.a.(ed.), *Die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e. Redaktions- und religionsgeschichtliche Perspektiven zur "Deuteronomismus"-Diskussion in Tora und Vorderen Propheten*, BZAW 365 (Walter de Gruyter,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GmbH, 2006), 125-137; H. U. Steymans, "Die literarische und historische Bedeutung der Thronfolgevereidigung Asarhaddons", M. Witte, u.a.(ed.), *Die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e. Redaktions- und religionsgeschichtliche Perspektiven zur "Deuteronomismus"-Diskussion in Tora und Vorderen Propheten*, BZAW 365 (Walter

헌과의 비교 연구가 중요했고, 그 결과 국제적 조약 문서가 신명기의 계약 본문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뤼터스 베어덴은 신명기의 셈어적 계약 전통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sup>19</sup>

필자는 이러한 연구사를 근거로 ‘비아르타 공식’의 전통사적 개념이 복서셈 어적인 사법적 틀 안에서 해석 가능성을 밝히고자 한다. 그것은 신명기의 ‘그 악의 제거’라는 사고가 피지배 국가의 계약 위반에서 오는 개념으로 주전 8세기 말 경의 카라테페(Karatepe)라는 비문에서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sup>20</sup> 또한 이 연구에서 아람어로 기록된 조약문서인 스피르(Sefire) 비문은 신명기 계약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신명기 구조와 관련하여 새로운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21</sup>

de Gruyter,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GmbH, 2006), 331-349; K. Radner, "Assyrische tuppi adê als Vorbild für Deuteronomium 28,20-44?", M. Witte, u.a.(ed.), *Die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e. Redaktions- und religionsgeschichtliche Perspektiven zur "Deuteronomismus"-Diskussion in Tora und Vorderen Propheten*, BZAW 365 (Walter de Gruyter,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GmbH, 2006), 351-378.

19 U. Rüterswörden, *Das Buch Deuteronomium*, NSK-AT 4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GmbH, 2006), 15.

20 H. Donner/W. Röllig, *Kanaanäische und aramäische Inschriften Band II*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64), 35-38.

21 신명기와 시리아지역의 조약 문헌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U. Rüterswörden, "Die Liebe zu Gott im Deuteronomium", M. Witte, u.a.(ed.), *Die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e. Redaktions- und religionsgeschichtliche Perspektiven zur "Deuteronomismus"- Diskussion in Tora und Vorderen Propheten*, BZAW 365 (Walter de Gruyter,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GmbH, 2006), 229-238; ders., "Purity conceptions in deuteronomy", Ch. Frevel and Ch. Nihan, *Purity and the Forming of Religious Traditions in the Ancient Mediterranean World and Ancient Judaism*, Dynamics in the History of Religion Vol.3 (Leiden: Brill, 2013), 413-428 ; Ch. Koch, "Zwischen Hatti und Assur: Traditionsgeschichtliche Beobachtungen zu den aramäischen Inschriften von Sfire", M. Witte, u.a.(Hg.), *Die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e. Redaktions- und religionsgeschichtliche Perspektiven zur "Deuteronomismus"-Diskussion in Tora und Vorderen Propheten*, BZAW 365 (Walter de Gruyter,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GmbH, 2006), 379-406.

## 2)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문학 비평과 함께 각각의 본문을 전통사적 입장에서 적용하여 ‘비아르타 법’(bi'arta-law)의 근본적인 사고가 복서 셈어계의 조약 전통의 영향 아래 있는 신명기 계약 전통의 모습을 밝히고자 한다. 이에 필자는 각각의 본문을 분석하고 예언서와 성문서를 통하여 신명기 본문들의 시대적 상황을 예단하고, 새로운 시대적 운명 공동체의 사회적 관심사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 3. ‘비아르타’법(ביארטא-law)과 관련된 본문들

### 1) 신명기 안에서의 ‘비아르타’법

신명기의 구조에서 볼 때, ‘비아르타’법과 관련된 본문들은 소위 원신명기에 속하는 신명기 12-26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비아르타 공식’인 “너는 너의 가운데에서 그 악을 제거할지라”(ובערת הרע מקרבך)라는 끝맺는 어구는 다음과 같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

① 신명기 13장 1-5절 ② 신명기 17장 2-7절 ③ 신명기 17장 8-13절 ④ 신명기 19장 15-19절 ⑤ 신명기 21장 18-21절 ⑥ 신명기 22장 13-21절 ⑦ 신명기 22장 22-24절 ⑧ 신명기 24장 7절.

이 문장들은 일반적으로 호칭이 이인칭 남성 단수로 사용되고 있다(예로 4장, 12장 등). 신명기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한 본문 안에서 성수의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인칭 남성 단수 형태는 본문 안에서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난다. 하나는 집합적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 개념이다. 이 형태가 문학비평에서는 여전히 다른 층으로 구분하려는 분류의 기본적인 단서가 된다. 이 문제가 신명기의 중요한 연구 대상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여기서 내용상 약간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본문은 17장 12절과 21장 21절이며, 각각 ‘너의 가운데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로 변형되어 기록되고 있다. 21장 21절의 편집의 흔적은 ‘너의 가운데’와 ‘모든 이스라엘’이 동일한 의미로 나란히 등장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만하다. 또한 모든 법적 사건들은 ‘너라



는 이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 접미사를 사용하면서, 십계명과 유사한 결의론적(kasuistisch) 법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형태들은 결과적 상황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단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이 본문들에서 등장하는 ‘그 악’의 의미가 중요하다.

### (1) 신명기 13장 1-5절

‘비아르타 공식’이 언급된 본문들은 각각 내용적으로 서로 상이한 법적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신명기 13장을 제외한다면, 다른 7개의 본문은 시대적으로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문학적인 위치로 볼 때, 신명기 13장은 12장 바로 다음에 위치하여 마치 독자들로 하여금 13장이 12장의 제의 중앙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케 한다.<sup>22</sup> 일반적으로 ‘야웨의 배교’라는 주제가 신명기 13장의 주요한 주제로 인식되어 왔으나, 실제로 본문은 배교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유혹’(2절, 6절 “너를 꺾어”, 13절 “유혹하여”)이라는 주제가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다.

오토에 의하면, 세 개의 본문들(1-5; 6-11; 12-18) 중 앞 두 개의 본문만이 원래 주전 7세기의 에살하돈 왕위 계승 조약(Vassal-Treaties of Esarhaddon, 소위 VTE)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sup>23</sup> 그 결과 13장의 세 번째 본문인 12-18절을 원신명기 본문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13장의 본문이 ‘야웨의 배교(Abfall von Jahwe)시 사형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야웨 배교를 조장하는 유혹자에 대한 사형법’에 더 가깝다는 것이 이 본문의 방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뢰터스베어텐은 신명기 13장을 지극히 복서셈어적 영향 아래 있는 국가간 조약 전통으로 취급한다. 그는 스피르 비문의 내용에 세 번째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음을 중요한 단서로 제시한다. 또한 신명기 13

장 3절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신명기 6장 4-5절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한다.<sup>24</sup>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호칭의 성수의 변화다. 이 호칭의 변화가 신명기 4장에서 이인칭 남성과 복수가 뚜렷하게 등장하듯이, 신명기 13장도 이런 유형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본문들에서 같은 이인칭 남성의 호칭을 사용하지만, 그 단수 호칭의 특성은 집합성(2절, 14절)과 개별성(6-11절)으로 번갈아 나타나기도 한다. 한 조약 본문 안에서 단수와 복수가 번갈아 사용되는 문학적 유형은 아직 고대 근동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주전 8세기 스피르 비문에서 발견된다.<sup>25</sup> 그러나 단수 형태로 개인과 단체를 동시에 포함하는 예는 아직 어디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스피르 비문 III 본문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기대해 볼 수는 있다.<sup>26</sup>

또한 뢰터스베어텐은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13장 전체에서 ‘악의 전염성 모델’(Kontaminationsmodell des Böse)이라는 주제가 동일한 개념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다.<sup>27</sup> 특히 ‘비아르타 공식’에서 나타나는 ‘그 악’의 의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식적인 ‘거리 두기’로서 대표된다. 그 ‘악’은 위험한 활동을 포함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용어는 형용사 ‘악한’의 명사형으로서 활동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그 ‘악’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위험 요소가 된다.

이러한 특성은 계약 파기의 모습으로 신명기 13장 안에서 강조되고 있다. 그 계약 파기는 십계명의 제1계명(출 20:2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찌니라.”)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13장은 우상(Bilderverbots)이나 이방 신들(Fremdgötter)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명기 13장의 세 본문에서 각각 2절, 6절, 14절에서도 분명하게 “다른 신들”을 섬

22 예배 중앙화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한동규, “예배의 중앙 통일화”, 『구약논단』 제16권 3호 (2010년 9월), 257-285.

23 E. Otto, 윗글, 15-90.

24 U. Rüterwörden, 윗글 (2006), 88.

25 U. Rüterwörden, “Dtn 13 in der neueren Deuteronomiumforschung”, A. Lemaire (ed.), *Congress Volume Basel 2001*, VT.S 92 (Leiden, Boston: E.J.Brill, 2001), 231.

26 H. Donner/W. Röllig, *Kanaanäische und Aramäische Inschriften*, 9-14.

27 U. Rüterwörden, 윗글 (2006), 86.

기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내용상으로는 제1계명과 유사하나 단순한 금지 규정이 아니라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계약 전통의 입장을 뚜렷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악은 감염균과 같다.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한다. 그 감염균은 사회를 격리하게 만들고 파괴한다.<sup>28</sup> 메소포타미아에서 ‘악’은 신들린 것과 같은 힘으로 이해했다. 종종 이 초자연적인 힘(소위 마귀, 악령 등등)은 주술 모음집에서 ‘악’으로써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제의적인 의식 속에서 싸워야 할 대상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그만큼 일상에서 과소평가될 수 없는 사회적 요소였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악’은 야웨의 신적인 상대역이 될 수 없다. 다만 신명기 13장 13절에서 ‘어떤 잡류’(בְּיַד־בְּהֵמָה; MT 14절)는 후기 유대주의를 반영하는 쿰란(Qumran) 문서에서 ‘야웨의 대항자’로 알려져 있다.<sup>29</sup> 이런 면에서 ‘악’은 한 사회의 대상이 대기도 하고, 또한 한 개인의 도덕성의 발현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 (2) 신명기 17장 2-7절, 8-13절

신명기 17장은 우상숭배에 대한 처벌 규정(2-7절)과 상급심 재판 규정(8-13절)을 소개한다. 이 두 가지 주제는 모두 ‘재판’이라는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다. 주목할 만한 본문은 신명기 17장 2-7절의 본문이다. 이 본문은 신명기 13장의 내용을 접목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 및 첨가하고 있다. 2절에서 ‘언약을 어기다’라는 표현이 제1계명인 우상숭배(일월성신)에 대한 금지 규정을 드러낸다. 이러한 언약 파기는 ‘가중할 일’로 규정되고, 그 결과 ‘성문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그 결과 “너의 중에 악을 제할 것이라”(7절)는 결의문으로 끝난다. 여기서 ‘너’는 분명히 집합 개념을 담고 있는 이인칭 남성 단수로 13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28 최근(2020년 3월)에 WHO는 Covid-19 사태를 ‘팬데믹’으로 규정하면서, 감염성의 활동이 세계적인 대유행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 현상이 신명기 신학의 주제와 밀접한 것은 전염병이 인간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것이다.

29 U. Rüterwörden, *윳글* (2006), 87.

이러한 수정은 이후 나타나는 ‘비아르타’법의 본문들과의 연결을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적어도 이 법들이 지향하는 것은 각각 사회적-종교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문제제되고 있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고, 결국 포로기 이후 새로운 이스라엘의 평민 공동체 중심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초가 되는 법안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의미는 이 법들이 출애굽기 21-23장의 언약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동시에 그 사고는 예언자적 전통 위에서 있기도 하다.<sup>30</sup> 그러나 언약법에서 ‘라아’(악)이라는 단어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신명기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이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 이유는 신명기 법이 언약법에 기초하여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17:2-7)은 공직자법(16:18-18:2) 안에 위치하여 다소 그 흐름을 방해한다. 즉, 신명기 12장은 제의를 소개하고, 13장은 제의와 관련된 오직 야웨만 섬길 것을 명령하며, 14장은 제의와 관련된 부정한 음식 규정과 십일조를 담고 있고, 15장은 제의를 위한 순례 규정들을 소개하며, 16장 1-17절까지 삼대 명절을 언급하여 제의 규정을 견고히 하고 있다. 이에 갑자기 18-20절이 재판 규정을 언급하면서 12장 이후 계속되는 ‘제의’ 주제와 관련된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로핑크와 브라울릭은 공직자법을 편집된 것으로 주장한다.<sup>31</sup> 그러나 뤼터스베어텐은 신명기 12장 1절의 ‘규례와 법도’의 내용으로 서로 잘 짜여 있는 구조물로 보았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신명기 16장 1-17절이 ‘제의’, 16장 18-20절이 ‘재판’, 16장 21절-17장 1절이 ‘제의’, 그리고 17장 2-7절이 ‘재판’이라는 구조로 잘 형성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32</sup> 즉 규례의 영역으로 ‘제의’를 ‘법도’의 영역으로 ‘재판’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30 U. Rüterwörden, *윳글* (1996), 231.

31 N. Lohfink, *Studien zum Deuteronomium und zur deuteronomistischen Literatur I*, SBAB 8 (1990), 306; G. Braulik, *Die deuteronomischen Gesetz und der Dekalog*, SBS 145 (1991), 46.

32 U. Rüterwörden, *윳글* (1987), 30.

- A. 16장 1-17절이 '제의'
- B. 16장 18-20절이 '재판'
- A'. 16장 21절-17장 1절이 '제의'
- B'. 17장 2-7절이 '재판'

이런 점에서 17장 2-7절은 계약 파기 상황을 소개하고 있고, 8-13절은 상급 재판이 성소와 연결되어 있다. 8절 “네 하나님 여호와와 택하실 곳.” 여기서 12절은 ‘비아르타 공식’의 변형이 일어난다. ‘너의 가운데’가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 이러한 모습들은 13장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인칭 남성 단수의 호칭은 개별성으로만 나타나고, 집합성 개념으로는 등장하지 않는다.

### (3) 19장 16-21절

이 본문은 재판에서 증인의 도덕성에 대한 법 적용에 대하여 소개한다. 17절의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과 제사장과 재판장에 대한 언급은 17장 8절과 연결된다. 이곳도 이인칭 남성 단수로 소개되는 호칭은 개별성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 19절의 ‘비아르타 공식’에서 나타나는 ‘그 악’의 의미는 적어도 15절의 ‘콜-아온’(모든 악/כָּל-עוֹן)과 ‘콜-하타트’(모든 죄/כָּל-חַטָּאת)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용어들은 12장 1절의 ‘규례와 법도’와 각각 연결 될 수 있다. ‘콜-아온’은 ‘법도’와 그리고 ‘콜-하타트’는 ‘규례’와 연결될 수 있다. 그 ‘악과 죄’는 본문에서 재판에서의 위증 행위를 암시한다.

### (4) 21장 18-21절

이 본문은 패역한 아들에 대한 본문이다.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라는 개념은 계약의 개념을 삶 속으로 확장하여 언급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순종하다’라는 히브리어 구문은 ‘사마’(שמע)+‘브’(ב)로 표현된다. 이 표현은 13장 4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계약 전통의 범위에 속하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8장 1절과 15절과도 연결되는데, 소위 조약 문서에도 등장하는 축복과 저주의 형

태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개념을 대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아르타 공식’이 위치하면서 마치고 있다. 여기서의 호칭은 개별성을 의미한다.

### (5) 22장 13-21절

이 본문은 누명을 쓴 여인과 성폭력을 당한 여인에 대한 법도를 설명한다. 이 법의 끝 부분은 다른 본문처럼 ‘비아르타 공식’으로 마친다. 21절의 ‘악’은 ‘느발라’(נבלה)의 번역이다. ‘악을 행하다’의 본문 내용은 예레미야 29장 23절의 내용과 유사하다. 이 본문에서 제9계명과 ‘증인’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고, 이 모습은 신명기 17장과 22장에서 만날 수 있다. 이 공식의 ‘악’은 본문 24절의 ‘너희’가 언급되므로 ‘너’의 특성은 집합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본문은 신명기 13장과 연결된다.

### (6) 22장 22-24

이 본문은 혼인한 이웃의 아내를 범한 처벌 규정이다. 22절은 ‘너’ 대신 ‘이스라엘’을 대입하여 집합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고, 23-24절은 ‘너’가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합적 개념을 지니고 있다. 후자의 법은 ‘돌로 죽이라’ 규정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13장 10절, 17장 5절, 21장 21절, 22장 21절, 22장 24절에서 적용하고 있다.

### (7) 24장 7절

이 본문은 인신매매의 금지법이며, 결의론적 법으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가난한 자나 약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보장을 중시하는 법으로서 읽을 수 있다. 사회적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권리는 적어도 2인 이상의 공동체성으로 이해된다. 이에 ‘비아르타 공식’으로 마치는 이인칭 남성 단수의 호칭은 ‘집합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인신매매의 불합리성은 아모스 2장 8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죄에도 부합되며, 이에 아모스서의 최종본은 ‘계약신학’의 모습으로 구성되어 처벌 규정을 강조하고

있다.<sup>33</sup>

지금까지 '비아르타' 공식이 나타나는 본문에서 이인칭 단수 남성 호칭 '너'의 집합 또는 개별적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너': 집합적 개념	'너': 개별적 개념
13장 1-5절 (둘로 죽임)	
17장 2-7절(2, 3)	17장 2-7절(둘로 죽임)
	17장 8-13절(죽임)
	19장 16-21절(동태복수법)
	21장 18-21절(둘로 죽임)
22장 13-21절(둘로 죽임)	
22장 22-24절(둘로 죽임)	
24장 7절 (죽임)	

## 2) 악의 전염성 모델

'비아르타'법들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그 악(רַע)'으로, 히브리어 동사 '라이' רָע에서 왔다. 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형용사적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신명기의 '비아르타'법들에서는 형용사의 명사형으로 사용되면서, 도덕이나 법적 개념으로서 '해악'이나 '악한 행위'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은 구체적으로 법적 용어로서 분류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계약 전통을 종교사회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개념은 계약 전통이 야훼 신앙 중심의 사회 체제 안에서 종교법과 사회법의 기저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1) 오경 안에서 '그 악'

신명기의 '비아르타' 공식이 놀랍게도 언약법(출 21-23장)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sup>34</sup>

'비아르타' 법	주제 및 내용	언약법
신명기 13:6	야웨 배교의 유혹	
신명기 17:7	야웨 배교	출애굽기 22:19
신명기 17:12f.	에루살렘 상급심의 잘못	
신명기 19:19	거짓 증인	출애굽기 23:1
신명기 21:21	불량한 아들	출애굽기 21:15, 17.
신명기 22:21, 24.	허락되지 않은 성적인 접촉	
신명기 24:7	인간의 노예화	출애굽기 21:6

이 결과에 의하면, 법적인 자료들은 나타나고 있으나, '그 악'의 법적인 자격 요건이나 그 특징들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관점이 의미하는 바는 신명기의 '비아르타' 공식의 사법적 내용들이 언약법에 기인하지만, 그 특징적인 조건들은 예언서의 내용으로부터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sup>35</sup> 즉 신명기의 '비아르타' 공식이 전통사적으로 구약 안에서 언약법보다는 예언서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이며, 예언 전통이 법적 능력보다 더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비아르타'법들은 예언 전통을 먼저 이어받았고, 이후 이 언약법을 중심으로 더 확장되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악한 행위'로 언급하여 확장된 종교적인 법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다.

언약법 이외에도 민수기 25장 6-8절은 중요한 '그 악'의 개념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곳은 비느하스의 행위에 염병이 사라진 사건을 보도한다.<sup>36</sup>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악한 행위로 위기에 처해있을 때, 그 악함 자체를 제거하므로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그 악함은 십계명의 제1계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신명기의 전염성 제거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여기서도 '악의 전염성 모델'(Kontaminationsmodell des Böse)이라는 주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민수기의 이 사건은 분명 신명기 신학의 영향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악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소개되지 않고, 실증법과 관련된 범죄

33 Jongwon Choi, 甝글 (2011), 248-264. 아모스의 계약 신학에 대해서 다음을 참고하라. 최종원, "신명기 계약 신학의 법주로서 아모스 읽기: 아모스서의 '서너 가지 죄'", 『구약논단』 제24권 3호 (2018년 9월), 201-229.

34 U. Rütterswörden, 甝글 (1996), 224.

35 甝글, 231-233.

36 G. Seitz, 甝글, 131 각주 126을 참조하라.



(Übel)로서 소개된다. 이러한 이해 범주로 볼 때, 당시 종교법은 공법과 함께 공용되었고, 이러한 공법은 형법과 함께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므로 이 사고가 사회적 통제를 통해서 레위기의 '정함과 부정함'의 주제들과 관련이 있는지가 또 다른 중요한 관심사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2) 신명기 사가적 역사서

흥미롭게도 신명기 17장 2절은 “여호와 네 하나님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라는 내용을 ‘언약을 어겼다’라는 표현과 나란히 놓으면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이러한 표현은 다름 아닌 소위 신명기 사가의 본문으로 알려진 신명기 4장 25절과 31장 29절도 사용하고 있다. 이 표현은 열왕기상 16장 3절과 21장 21절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27절과 12장 9절도 그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본문들은 모두 ‘야웨 배교’와 관련이 있다.

‘야웨 배교’의 중심에 사사기 20장 13절(MT 14절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이 있다. 베냐민 지파의 악(삿 19:23; 20:3, 12)한 일로 이스라엘 내부에 균열이 발생한다. 여기서 19장 22절 “비류들”이 등장하여 악한 일을 행한다. 19장 23절의 ‘악을 행하다’의 히브리어 동사는 ‘라야’(לַיָּא)이다. 이 비류들은 신명기 13장 13절에서 ‘어떤 잡류’(בְּנֵי־בַלְעִיַּל; MT 14절)와 같은 용어로 등장한다. 분명 이 ‘악한 일’은 사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성을 파괴한다. 악의 전염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 (3) 예언서

미가서 2장 1-5절은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상황에서 ‘악’의 모습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언약법(출 21-23장)에서 등장하지 않는 ‘악’은 예언자 전승 속에서 문학적 표현(미 2:1, 3)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 ‘악’은 분명히 사회적인 범죄를 의미한다. 그리고 7장 3절도 사회적인 악을 언급하므로 형벌의 날이 곧 임할 것임을 강조한다. 아모스 5장 13-15절도 동일한 배경으로 이스라엘의 사회적 악을 규정한다. 소예언서(호 7:13-15)에서 이러한 ‘악’의 모습은 사회적인 악

과 뿌리가 깊다. 이런 면에서 신명기는 재앙 선포 예언자의 메시지와 깊은 관계가 있다.

### (4) 성문서

‘룻’ 이야기는 분명 ‘비아르타’법의 한 예증이 될 수 있다. ‘비아르타’법을 이끌고 있는 주된 관점은 ‘야웨에 대한 배교’로 제1계명의 위반이다. 이러한 행위는 악으로 간주되며, 결국 신명기에서는 저주로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비아르타’법의 첫 번째인 신명기 13장 2-6절의 말씀은 ‘뒤따르다’라는 동사적 의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러한 신앙적 개념이 ‘룻’ 이야기에서 비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sup>37</sup> 물론 주요한 개념인 ‘(악)을 제거하다’라는 동사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룻기는 비아르타 법의 영향아래에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 (5) 성서 이외의 흔적: 북서셈어권의 조약 비문의 영향

주전 720년 경 페니키아의 카라테페(Karatepe) 왕 아찌트밧다(Azitwadda)의 무덤 비문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반역자들을 부서뜨렸고 그 땅에 있는 그 모든 악을 제거했다.”<sup>38</sup> 여기서 ‘악’(אָ)의 개념은 국가간 계약 위반사항이며, 그 악(אָ)은 오염될 수 있는 범죄적 성향(정치적으로 적대적 관계)이므로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계속해서 이 비문의 두 번째 본문에서 자신의 무덤을 더럽혀 자신의 왕국을 헤치려는 행위를 염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이 기록되어 있다. “만일... 그가(대적자) 자신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욕심으로든지, 아니면 원한이나 악(אָ)을 가지고 아찌트밧다 왕의 이름을 제거하든지 간에, 하늘을 만든 바알(Baal)과 땅을 만든 엘(El)과 신들의 아들이 그 대적자의 왕국과 그 왕과 지위를 얻고자 그 대적자를 따르는 모든 인간을 제거하기를 원한다. (본문 A와 B)<sup>39</sup> 이러한 개념은 분명히

37 U. Rütterswörden, *룻* (1996), 231.

38 비문의 번역문은 다음을 참고하라. “Karatepe Inschrift”(Nr. 26), H. Donner/W. Röllig, *룻*, 36.

39 H. Donner/W. Röllig, *룻*, 37

신명기에서의 '악의 전염성(Kontamination)'이라는 신학적 특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페니키아 비문의 '악의 전염성'이라는 주제는 자신의 왕국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표현한다. 그 결과 반역자들과의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계약 개념과도 연결될 수 있는 시대적 상황과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은 신명기 17장 2-7절의 상황과 유사하다. 다만, 신명기 17장의 시대적 배경은 포로기 이후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신명기 17장 2-7절이 계약의 파괴라는 관점에서 의무와 징벌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이는 그 본문이 계약 전통 아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아람어로 기록된 북서셈어 조약 문서인 스피르 비문에서 선과 악은 봉신 국가의 순종과 불순종의 행위 개념과 관련이 깊다. 카라테페의 왕 아찌트밧다가 반역자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악함을 하나의 행위로 소개하는 것처럼, 조약 문서 역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항들을 잘 수행하도록 외적인 장치로 악한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저주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 본문에서도 그 반역의 행위가 '악'의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예로, 스피르 IA 26에서 '악'은 계약 위반 시 저주의 대표성으로 나타나며, IC 6, 19-20에서 봉신국가의 조약을 어기는 모습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내가 선을 잃어버리고 악으로 돌아가겠다."<sup>40</sup> 또한 III 2에서 '악한 말'로 마음이 변한 피지배계층의 상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각 본문은 조약법의 위반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각각 신뢰의 의미로 '선'을, 조약의 배반으로 '악'이라는 표현을 소개한다. 이러한 의미들은 전형적인 조약 양식에서 '축복과 저주'의 모습으로 다음과 같은 본문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신명기 23장 5절, 예레미야 31장 13절, 아모스 5장 7절, 6장 12절, 8장 10절, 시편 30편 11절 등이다. 이렇게 스피르 비문의 조약 문서에 나타난 문학적 특징은 새로운 신명기 연구에 큰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신명기의 북서셈어적 영향에 대하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튀터스베어텐은 자신의 신명기 주석에서 이

40 H. Donner/W. Röllig, *윗글* (1964), 264f, 258.

러한 개념을 소개하면서 신명기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sup>41</sup> 그러므로 여기서 악한 행위는 지배계급에 대한 배반 행위가 되며, 이러한 개념과 함께 사용되는 주술적 저주는 그 악한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외적 장치가 된다. 조약의 피지배자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회와 문화 저변에 쌓여 있는 계약 위반의 사고를 떠올리게 되며, 결국 사회 공동체는 계약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가짐을 올바르게 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게 된다.<sup>42</sup>

북서셈어권의 조약 비문(스피르 비문)과 주전 8세기 카라테페 비문은 북서셈어권에서 '악'의 개념을 잘 조명해 준다. 이러한 예는 신명기의 '악'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며, 특히 '비아르타'법에서 사용하는 '그 악'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해 주고 있다.

#### 4. 결론

본 연구는 신명기 12-26장에 나타난 '비아르타'법의 문학적 성장을 밝혔고, 그에 따른 각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13장이 시대적으로 포로기 이전의 배경사를 가지고 있지만, 최종 형성 단계에서 신명기 17장이 이후 소개된 모든 본문과 연결시켜주는 핵심적인 본문으로 밝혀졌다. 또한 '비아르타 법'의 전통사적 근원지를 조사하여 그 시초가 신명기의 계약적 사고 위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개념은 계약 전통이 야훼 신앙 중심의 사회 체제 안에서 종교법과 사회법의 기저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문은 북서 지역의 셈어적 영향권 아래 있는 계약적 사고 위에서 해석이 가능했고, 그 가능성을 열어준 본문들이 8세기 스피르 비문과 카라테페 비문이었다. 이 비문들은 전형적인 조약 본문들로서 '악'에 대한 근본적인 개

41 참고 U. Rütterswörden, *윗글* (2006), 178-179.

42 스피르 비문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J. A. Fitzmyer, *The Aramaic inscriptions of Seire*, *biblica et orientalia* 19/A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5) : KAI Nr.222-224; 북서셈어에 나타난 계약 본문 안에서의 '쉐바(שׁבָּא)', 『Canon & Culture』 제6권 1호 (2012년 봄), 123-151.

념을 사용하면서 당시 피지배계급을 향하여 봉신의 의무를 다하도록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러한 계약적 개념은 신명기의 본문들이 적어도 예언서의 언약적 사고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벨하우젠의 기본 역사적 근거의 이론이 되었던 “예언이 법보다 우선한다.”에 대한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최근 문서설은 약화되었으나, 그 근본적인 개념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러한 관점은 신명기서의 최종 형성 본문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비아르타 법’(bi'artala)의 성격과 그 특징이 예언서와 성문서와의 관계를 통하여 ‘본문 간의 연구’(intertextuality)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5. 참고문헌

- 이은우, “소위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구약논단』 제14권 3호 (2008년 9월), 67-86.
- 최종원, “복서 셈어에 나타난 계약 본문 안에서의 '쉐바'(שׁבָּא)”, 『Canon & Culture』 제6권 1호 (2012년 봄), 123-151.
- 최종원, “신명기 계약 신학의 범주로서 아모스 읽기: 아모스서의 ‘서너 가지 죄’”, 『구약논단』 제24권 3호 (2018년 9월), 201-229.
- 한동구, “예배의 중앙 통일화”, 『구약논단』 제16권 3호 (2010년 9월), 257-285.
- Braulik, G., *Die deuteronomischen Gesetz und der Dekalog*, SBS 145 (1991).
- Donner, H./Röllig, W., *Kanaanäische und aramäische Inschriften*, Band II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64).
- l'Hour, J., "Une législation criminelle dans le Deutéronome", *Biblia* 44 (1963), 1-28.
- Koch, Ch., "Zwischen Hatti und Assur: Traditionsgeschichtliche Beobachtungen zu den aramäischen Inschriften von Sfire", M. Witte, u. a. (eds.), *Die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e. Redaktions- und religionsgeschichtliche Perspektiven zur "Deuteronomismus"-Diskussion in Tora und Vorderen Propheten*, BZAW 365 (Walter de Gruyter,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GmbH, 2006), 379-406.
- König, E., *Das Deuteronomium* (KAT; Leipzig: A Deichertsche Verlagsbuchhandlung Werner Scholl, 1917).
- Lohfink, N., *Studien zum Deuteronomium und zur deuteronomistischen Literatur I*, SBAB 8 (1990).
- Merendino, R. P., *Das Deuteronomische Gesetz: Eine literarkritische, gattungs- und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Untersuchung zu Dt 12-26* (BBB; Bonn: Peter Hanstein Verlag Bonn, 1969).
- Morrow, W. S., "Cuneiform literacy and deuteronomic composition", *Bibliotheca orientalis* 62 (2005), 204-213.
- Nielsen, E., *Deuteronomium* (HAT I/6, Tübingen: Mohr, 1995).
- Otto, E., *Das Deuteronomium. Politische Theologie und Rechtsreform in Juda und Assyrien*, BZAW 284 (Berlin/New York, 1999).
- Pakkala, J., "Der literar- und religionsgeschichtliche Ort von Deuteronomium 13", M. Witte, u. a. (eds.), *Die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e. Redaktions- und religionsgeschichtliche Perspektiven zur "Deuteronomismus"-Diskussion in Tora und Vorderen Propheten*, BZAW 365 (Walter de Gruyter,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GmbH, 2006), 125-137.
- Radner, K., "Assyrische tuppi adê als Vorbild für Deuteronomium 28,20-44?", M. Witte, u. a. (eds.), *Die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e. Redaktions- und religionsgeschichtliche Perspektiven zur "Deuteronomismus"-Diskussion in Tora und Vorderen Propheten*, BZAW 365 (Walter de Gruyter,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GmbH, 2006), 351-378.

- Rofé, A., "The Organization of the Judiciary in Deuteronomy", P. M. Michèle Daviau, J. W. Wevers, M. Weigl, *The World of the Aramaeans I* (JSOTSup.32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92-112.
- Rüterswörden, U., "Die Persische Reichsautorität der Thora: fact or fiction?", *Zeitschrift für altorientalische und biblische Rechtsgeschichte* 1 (1995), 47-61.
- Rüterswörden, U., "Das Böse in der deuteronomischen Schultheologie", T. Veijola (ed.), *Das Deuteronomium und seine Querbeziehung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6), 223-241.
- Rüterswörden, U., *Von der politischen Gemeinschaft zur Gemeinde. Studien zu Dt 16,18-18,22* (BBB Band 65; Frankfurt am Main: Athenäum, 1987).
- Rüterswörden, U., "Dtn 13 in der neueren Deuteronomiumforschung", A. Lemaire (ed.), *Congress Volume Basel 2001*, VT.S. 92 (Leiden, Boston: E. J. Brill, 2002), 185-203.
- Rüterswörden, U., *Das Buch Deuteronomium* (NSK-AT 4;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05).
- Rüterswörden, U., "Die Liebe zu Gott im Deuteronomium", M. Witte, u. a. (eds.), *Die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e. Redaktions- und religionsgeschichtliche Perspektiven zur "Deuteronomismus"-Diskussion in Tora und Vorderen Propheten*, BZAW 365 (Walter de Gruyter,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GmbH, 2006), 229-238.
- Rüterswörden, U., "Alte und neue Wege in der Deuteronomiumforschung", *Theologische Literaturzeitung* 132 (2007), 877-889.
- Rüterswörden, U., "Purity conceptions in deuteronomy", Ch. Frevel and Ch. Nihan, *Purity and the Forming of Religious Traditions in the Ancient Mediterranean World and Ancient Judaism*, Dynamics in the History of Religion Vol.3 (Leiden: Brill, 2013), 413-428.
- Seitz, G., *Redaktionsgeschichtliche Studien zum Deuteronomium* (Stuttgart, u. a.: Verlag W. Kohlhammer, 1971).
- Steymans, H. U., "Die neuassyrische Vertragshetorik der Vassal Treaties of Esarhaddon und das Deuteronomium", G. Braulik (ed.), *Das Deuteronomium* (ÖBS 23; Frankfurt a. M. u. a., 2003), 89-152.
- Steymans, H. U., "Die literarische und historische Bedeutung der Thronfolgevereidigung Asarhaddons", in: M. Witte, u. a. (Hg.), *Die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e. Redaktions- und religionsgeschichtliche Perspektiven zur "Deuteronomismus"- Diskussion in Tora und Vorderen Propheten*, BZAW 365 (Walter de Gruyter,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GmbH, 2006), 331-349.
- Veijola, T., *Das 5. Buch Mose (Deuteronomium). Kap. 1,1-16,1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 Wiseman, D. J., *The Vassal-Treaties of Esarhaddon* (London: British School of Archaeology, 1958).



## 검색어

신명기

비아르타 법

악

정함과 부정

복서 썬어 조약

## A Study on the bi'arta law of Deuteronomy

Jong-Won Choi

Lecturer a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Bonn University, Dr.theol.

Based on the text of Deuteronomy 13:1-5; 17:2-7; 19:15-19; 21: 18-21; 22:13-21, 23-24; 24:7, this study aim to explain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the 'bi'arta formula' that has typically appeared, to diagnose the literary growth of the Deuteronomy law (Deuteronomy 12-26), and to find a new value system as law in laws. These texts include social justice issues and are closely related to the subject of purity and impurity of Leviticus.

The typical idiom of the 'bi'arta law' consists of the close formula (Abschlußformel): 'You shall remove the evil in the midst of you.' This unique expression plays a central role in the Deuteronomic thought, which is the concer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ians who are interested in how the society should deal with the crime as a judicial act of 'the evil'.

The analysis of these text suggests that through tradition criticism the fundamental

thinking of the 'bi'arta law' is based on the covenant tradition of the Deuteronomy. This thinking hints that it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Northwestern Semitic covenant tradition.

Comprehensively, the constituents of the 'bi'arta law' propose the social concerns of Deuteronomy's new era community of destiny through each of their texts. In particular, the 'evil' which is emphasized in the judicial system in the text means unlawful acts which can be applied in the demonstration law. This 'evil' can be seen as the intention of the trad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ians who want to apply to the new community religious power replacing the state-centered judicial power that can be applied in the Persian era.

## Keywords

Deuteronomy

*bi'arta* law

evil

purity and impurity

Northwest Semitic treaty

- 투고일: 2020년 3월 29일
- 심사일: 2020년 5월 3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5월 4일

[www.kci.go.kr](http://www.kci.go.kr)